

“보에 갇혔던 영산강이 다시 흐른다” 환영

죽산보 개방 현장 가 보니

물 흐름 빨라지고 수위 1m 낮춰… 내일까지 510만t 방류 녹조 사라지고 영산강 복원 기대 속 농민들 물부족 걱정도

군건히 닫혔던 보(閘)가 드디어 열렸다. 길이 512m짜리 거대한 시멘트 구조물에 가로막혀 도저히 다시는 흐름 수 없을 것 같았던 보에서 강물이 새어나와 하류로 흘러갔다. 보 아래서 흘러나온 강물은 수면에 거품을 만들어 내 죽산보가 개방됐음을 세상에 알렸다.

1일 오후 2시 나주시 다시면에 위치한 죽산보가 개방되자 영산강은 조금씩 꿈틀대며 흐르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권 시절인 지난 2012년 농부와 시민, 환경단체, 갖가지 동식물들이 보 건설로 괴로운 신음을 토해냈던 이곳 영산강 죽산보 구간은 이날 모처럼 희망과 생명의 기운이 일렁이기 시작

했다.

총 4개로 된 보 수문은 죽산보에서 올라 퍼진 안내방송 이후 서서히 올라갔고 아래의 고정된 보와 올라간 수문 사이로 갇혀 있던 물은 흘렀다.

“지금부터 죽산보 수문을 조절합니다. 물이 방류되면 유속이 빨라지고 수위도 올라갑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에 따라 녹조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에도 영향이 없는 전국 8개 보를 이날 일제히 개방했다. 일시적인 개방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개방하는 ‘상시개방’에 들어간 것이다.

보에 갇혔던 강물의 수위는 시간당 2~3cm씩 낮아진다. 3일에 걸쳐 기존 3.5m 수위를 1m 낮춘 2.5m로 내린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오는 3일까지 총 510만t의 물이 방류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위를 서서히 낮추는 이유에 대해선 “혹시 모를 인명피해와 농업용수 영향, 수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 역할을 분담해 죽산보를 비롯한 보 상시 개방에 들어간 강물의 수질, 유량, 유속 등 데이터를 측정·수집하고 분석한다.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가 쌓여 분석이 이뤄지고 환경영향도 따진 후 수위를 더 낮출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다수의 시민들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영산강 죽산보 상시개방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인근 농민들의 사정은 조금 달랐다. 농부들 역시 ‘물은 고이면 썩는다. 강물은 흘러야한다’는 생각하지만

당장 벼를 기를 농업용수가 걱정이다.

이날 죽산보 인근 논에서 모를 심던 김미영(여·52)씨는 “죽산보가 있어 그동안 물 걱정은 없었다”면서도 “정부에서 다 따져가면서 수위를 결정한다고 했으니 농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문 개방 현장을 찾아온 주민 김민환(71)씨는 “수문을 조금 낮춘다고 녹조가 사라지고 강이 되살아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날 개방 현장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4대강 사업 적폐청산’, ‘흘러라 4대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찾아와 지켜봤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죽산보 수문 개방은 환영할 일이지만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를 완전히 열어 야한다”면서 “이번 수문 개방이 영산강 복원의 불씨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5·18재단, 유엔 NGO 가입 추진

‘임 행진곡’ 제창 등 올해 성과 진상규명 활동 역량 집중키로

5·18기념재단은 1일 “올 하반기에는 5·18특별법 제정, 진상규명위 설치, 국가공인 5·18진상보고서 등 5·18진상규명 활동에 재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5·18 세계화 사업의 하나로 5·18재단을 유엔(UN·국제연합) 등록 비정부기구(NGO)로 가입하는 절차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유엔 5·18국제학술회의를 비롯한 올해 5·18기념행사의 성과와 목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올해 5·18 성과와 관련해 “전일 빌딩 헬기 기총사격 탄흔, 전두환 회고록이 계기가 돼 올 한해는 5·18 진상규명을 위한 목소리가 분출됐다”면서 “촛불 혁명으로 앞당겨진 대선 과정에서는 정부

주도의 5·18진상조사와 진상보고서 채택, 5월 정선의헌법 전문 수록 등을 대통령 공약에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사를 통해 자신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5·18 관련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약속한 것도 커다란 성과”라면서 “5·18기념식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것 역시 당연하지만 뜻깊었던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5·18국제학술회의에 대해서는 “5·18정신과 가치를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고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유엔에 가입된 NGO단체가 아니어서 유엔을 무대로 5·18행사를 준비하는데 제약이 많았다”면서 “매년 유엔 본부에서 5·18 행사를 추진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국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유엔에 가입된 NGO단체가 아니어서 유엔을 무대로 5·18행사를 준비하는데 제약이 많았다”면서 “매년 유엔 본부에서 5·18 행사를 추진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국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khk@kwangju.co.kr

세월호 남은 미수습자 5명 찾자

3·5층 중앙구역 집중수색 시작

세월호 3층과 5층 중앙 구역에 대한 집중 수색이 시작됐다. 남은 미수습자 5명을 찾기 위해서다.

1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3~5층 전체 44개 수색구역 가운데 29개 구역은 1차 수색이 마무리됐다. 4층 객실은 대부분 완료됐고 3·5층은 중앙 구역을 제외하고 수색이 마무리 단계다. 3층은 일반인, 4층은 학생, 5층은 교사와 승무원 객실이었다.

학생들이 객실을 나와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4층 로비 등 중앙 구역은 진입로를 확보하고 지장물 제거, 진흙 수거 등을 하며 수색을 하고 있다. 수색 작업이 상대적으로 느린 5층 중앙 구역에도 진입로를 확보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현장수습본부에는 미수습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5층 지장물과 진흙 등을

수거하는 1차 수색을 이번 달 초 마무리할 계획이다. 1차 수색이 마무리되면 벽면 등에 달라붙은 진흙을 때 수거하고 유해 유무를 확인하는 정밀수색을 한다. 6월 말까지 정밀수색을 마지면 7~8월 화물칸 정리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조은화(4층 선미 객실), 허다운(3층 중앙)의 유해가 수습됐으며, 고창석 교사의 유해 일부는 침몰해역 수중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22일 이영숙(3층 선미)씨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돼 유전자(DNA) 분석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미수습자는 단원고 남현철·박영인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 등 5명이다.

한편, 4·16 가족협의회(유가족 단체)는 인양 후 선체 수색방법 중 하나로 검토됐던 ‘세월호 육상직립 방안’을 세월호 화물칸 정리 방법으로 검토해달라고 이날 요청했다. /김한영기자 young@



디자인비엔날레 홍보 ‘미래 꿈나무’ 앞 미소 짓는 ‘광주 꿈나무’

1일 오전 광주 신세계백화점 1층에서 문을 연 ‘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관에서 시민들이 ‘미래 꿈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홍보관은 18일까지 운영되며 이벤트에 참가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디자인비엔날레 입장권을 증정한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9월 8일부터 10월 23일까지 ‘미래들(FUTURES)’을 주제로 광주비엔날레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시립미술관 등에서 열린다. /김진수기자 jeans@

광주시, 간부공무원 등 2명 성추행 감사 착수

해외출장 중 물의... 수사 의뢰도

광주시가 간부 공무원 등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감사 착수와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일 “해외 출장 중 산하 공공기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A과장(4급)과 직원 B씨(6급)를 직위해제, 대기 발령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A과장은 지난 5월 8일 대만 출장 중 동행한 산하기관 여직원과 가진 술자리에서 만취한 채 음담패설을 하고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과장은 추행을 뿌리치고 숙소로 돌아간 여직원 숙소까지 찾아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를 하는 등 추태를 벌였으며, 여직원으로부터 만류를 부탁받은 직원 B씨는 이를 방관했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직원 B씨도 출장 기간 중 여직원을 술자리에 불러내 음담패설과 함께 붙을 꼬집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추행했다고 감사위는 덧붙였다. B씨는 또 출장 중 만찬용으로 산 술 일부를 가져가거나 개인이 구매한 과일 비용을 공공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년간 같은 업무를 해온 B씨는 이전에도 성추행 배위 등으로 진정돼 감사를 받았으며 타 부서로 전출된 뒤 1년도 안 돼 복귀했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감사위는 고발과 별도로 해당 부서에 수년에 걸쳐 산하기관 여직원 등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진정에 따라 전현직 여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산하기관, 협회에 대한 보조금 집행과 관리실태, 사업 위탁과정에서의 유착 의혹 등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거차도 주민들 서술서 기름 유출 피해 보상 촉구

진도군 동거차도 주민들이 세월호에서 유출된 기름이 미역 양식장을 덮쳐 분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동거차도 주민 40여명은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세월호 침사 당시 흘러나온 기름 때문에 한해 살림을 망친 데 이어 올해 인양 과정에서 다시 기름이 유출돼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인양업체·보원회사를 통해

구제반이라고 답했지만 우리는 당장 생계가 어려워 그런 여유가 없다”며 정부 차원의 선 보상을 요청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세월호 특별법에 어민들에 대한 보상 내용이 담기지 않아 법 개정 때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 (동거차도 어민들에 대한) 보상 내용을 넣자고 제안했고, 청와대도 답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한영기자 young@

지리산 온천지구내 K호텔

깨끗하게 새단장 했습니다!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숙박문의 H. 010-3605-5000
061-783-8090



대형모텔 매매·동업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2평 건물 718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세미나실/객실 2~4층 - 객실
- 전체 리모델링, 6월10일 오픈예정
- 시세/감정가 - 17억
- 매매 - 14억 5천만원 (조정가능)
- 동업 - 협의 (경험자우대)
- 용자 8억 포함, 법인체 인수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